

'80年代 環境管理의 要諦는 技術管理



金 丙 泰

〈서울대 環境大學院 부설
環境計劃研究所 研究員〉



60年代以後 급속한 經濟成長으로 世界의 耳目을 끌었던 우리나라가 근래에 들어 環境汚染이라는 “成長의 惡果”로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環境汚染問題는 한정된 國土空間에 높은 人口密度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실패에 대한 再起의 可能性이 높지 못하고 選擇의 범위가 넓지 못하다는 점을 우선 그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環境政策도 原因과 結果의 규명에 보다 신중해야 하고 對策의 選擇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環境政策의 選擇에서 우선 검토해야 할 사항은 우리의 環境政策基調가 成長이나, 保全이나 하는 것이다. 일부 先進國에서는 反成長政策의 옹호자들이 많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은 反成長政策을 택할 수 있을 만큼 여유있는 實情이 아니다. 따라서 成長을 하면서 保全한다는 다소 二律背反的인 選擇을 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成長은 반드시 汚染을 야기하느냐의 問題보다는 環境保全을 위해 어떻게 成長하느냐의 問題가 80年代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問題이다.

그리고 어떻게 成長하느냐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解決策은 技術管理이며, 이 점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成長潛在力을 開發하는 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技術은 人的資源에 體化되는 성향을 가지므로 보다 중요한 점은 人間開發이라고 하겠으며 技術管理과 人的資源管理가 環境政策의 支柱가 되어야 한다.

低汚染産業構造 및 社會構造의 건설을 위한 技術開發과 이를 위한 技術開發 人力의 確保, 그리고 環境問題에 대해 부단한 관심을 갖고 자기주변의 環境을 保全하려는 全國民의 의지만이 우리의 環境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